

#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지정 절차 중단

### 광주시 시민의견 수렴 결과 자연환경 파괴·오염 우려 3000여명 반대 의견 접수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인 동구 윤림동 일명 ‘동적골’ 일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절차가 중단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윤림동 750번지 일대 2만8500여㎡를 집단취락지구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최근 시민 의견을 수렴 한 결과 3000여명

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4월경 지정할 방침이었다. 동적골은 무등산 입구에 자리잡은 마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마을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이 일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동적골 인근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시에

건의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11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자연환경 파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계획변경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택을 신·증축할 수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우세한 셈이다. 동구청은 매년 봄이면 이 일대에서 톨립 꽃동산을 개장하는 등 작은 축제를 열

고 있으며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등 시민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취락지구 지정은 난개발로 이어지고 시가 추진중인 무등산 자연환경 복원사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마을 행위제한을 풀어주기 위해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린벨트에 묶여 실용성이 없다는 민원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반대가 많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양경제청, 6개 기업과 1369억 투자협약

### 715명 고용 창출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경제청 상환실에서 광양만권에 입주할 6개 기업과 1369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요양푸통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중국), ㈜이앤에프, 한국실리콘(주), ㈜에이티엔, 메드윈이노테크(주), ㈜솔루션(일본) 등 6개 기업이 모두 71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통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는 중국 기업 최초로 광양항 배후단지 9만6000㎡의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냉동·냉장창고를 건립, 동남아 등으로부터 해산물 등을 수입해 가공해 전량 중국 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다. 올촌 1산단에 입주할 이앤에프는 1만9800㎡ 부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재활용 정제연료유 제조 판매를 위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올촌 1산단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4개 업체 가운데 태양광 모듈 원자재

인 잉곳과 웨이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실리콘은 2만3100㎡ 부지에 460억원을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전량을 동남아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에이티엔은 경기 이천 본사와 전국 7개 지역에 영업거점을 둔 물류회사로 1만1250㎡ 부지에 145억원을 들여 수도권 택배 물류사업과 연동한 광양만권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메드윈이노테크는 1650㎡ 부지에 84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의류기기 제조 공장을 건립,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일본에 본사를 둔 ㈜솔루션은 1만6500㎡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철재 구조물과 기계류를 제작해 전량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들어 총 54개 기업으로부터 1조4757억원의 투자유치로 1만377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석 해수장관 완도 방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완도를 찾아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해양수산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 뒤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완도읍 정도 청해진유적지를 방문한 김 장관은 장보고 대사 동상에 헌화하고 동백나무를 기념 식수했다. 그는 이어 수산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완도 등 전남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준비 세미나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정현안 도와 주세요” 24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시정보고간담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새누리당 심판규 광주시당위원장 등에게 자동차산업벨트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지방 정가

### 박대현 광주 동구의원 대통령 표창

광주시 동구의회 박대현 구의원이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활동평의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제고 및 통일 정책 여론수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지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일요일도 수거한다

### 고강도 대책 내놔 ... 인건비 추가 부담 등 부작용도

광주시가 처리난을 겪는 음식물 쓰레기(광주일보 15일자 7면) 대책으로 일요일 수거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중무휴로 처리시설이 가동될 때 따른 고강도 수명단축, 인건비 추가 부담 등 부작용도 적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하다. 광주시는 27일부터 공공 제1음식물 자원화시설(송대사업소)을 일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300일 운영 일수가 49일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50t이다. 시가 많은 부담에도 일요일 운영을 강행한 것은 처리용량을 15%가량 초과한 쓰레

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 초과 발생량을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담양, 화순 등의 민간업체에 2배 가량 비싼 비용을 주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 최근 담양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량 과다로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가 큰 곤욕을 치러왔다. 일선 5개 자치구가 추가 부담한 비용만도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등 부담도 적지 않다. 시는 우선 일요일 운영을 희망한 남구와 북구 등 2곳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100t 가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일요일 운영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만큼 30%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공동주택

종량제(RFID)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구별로 발생한 쓰레기를 자동 계측해 수수료로 부담하는 제도다. 기계 설치 등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부른 근본적 원인은 2년여전에 준공한 제2처리시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용량 300t 규모인 이 시설은 약취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데다 애초부터 발생량을 고려치 않고 규모를 작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24일 “일요일 가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며 “발생량 감소, 분리배출 등 시민의 감량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겨울방학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광주시는 겨울방학 때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 아동 등 1만7352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등 942곳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하루에 최대 3회 결제(1만원 한도)가 가능한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마광민·양일옥 광주 북구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주시 북구의회 마광민(원복)·양일옥 구의원이 24일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선정됐다. 전국 733명 광역의원·2888명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주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마광민·양일옥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광민 의원은 “지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는데, 좋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